성화랑 8호 3차시 성화랑 플러스

마음과 몸의 수련

천원사

02

마음과 몸의 수련

생각 열기

오늘 주제는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point

1. 몸마음의 통일이 중요한 이유를 안다.
2. 본연의 인격체는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본다.
3. 몸마음을 통일하는 방법을 안다.

-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선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바랄 수 없습니다.
  또 선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않고는 선한 국가나 세계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나 자신에서 해결점을 찾지않으면 안됩니다.
  그 경계선이 마음과 몸입니다. (천 8.2.1:3)

- 수련이란 닦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닦고 연단하는 데는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깃덩이뿐인 겉사람과 다른 하나는 속사람이 그것인데,
  타락한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겉사람과 타락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본연의 인격체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인격체란 만물이 경배하고 하나님이 품에 품으시고 입을 맞춰 줄 수 있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연의 인격체를 표준으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천 8.2.1:1)

- 사람의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을 악살박살 내서 점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몸을 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몸을 주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마음은 허풍선같이 한 번도 몸과 대등하게 싸워 보지 못하고 번번이 져 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다 주사를 놔서 힘을 한 2, 3배쯤 늘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몸을 끌고 가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잡아끌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에다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이, 마음에 힘을 강하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과 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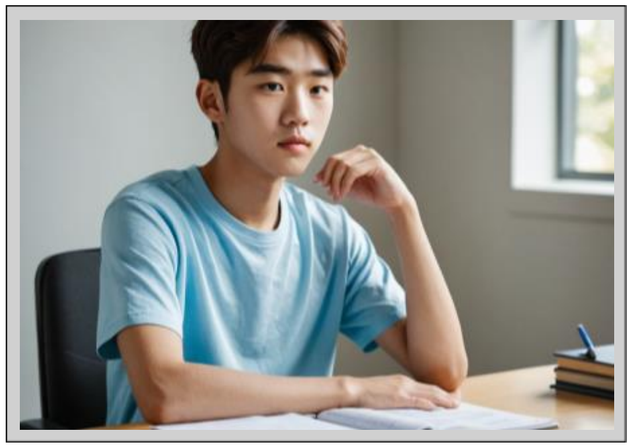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정없이 몸을 때려서 점령하는 방법과 마음에 힘을 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8.2.2:16)

-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천8.2.2.:17)

함께 나눠요

기억나는 단어 나누기

무슨 단어가 기억에 남았나요?
생각나는 걸 모두 3번에 적고 공유해요.



기억에 남는 구절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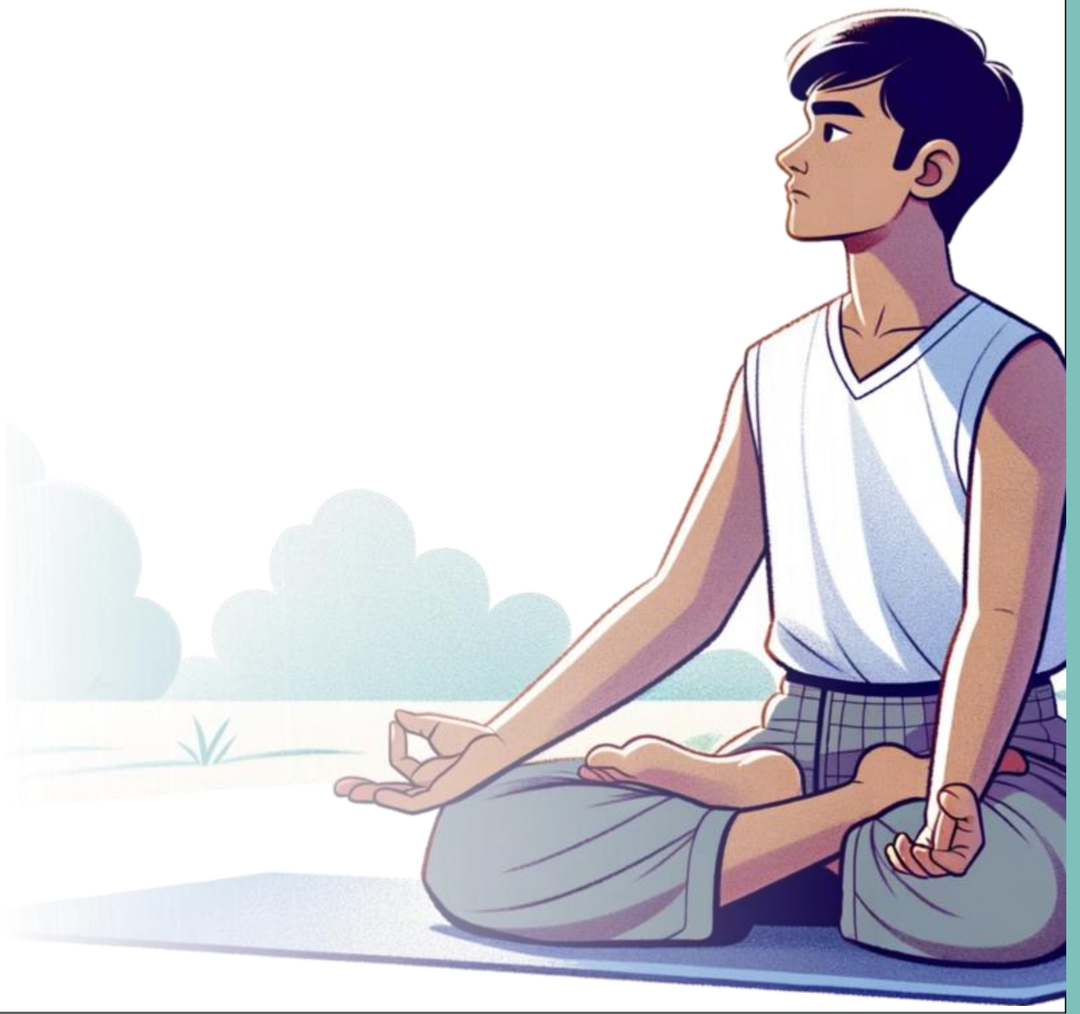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을 적어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떠오르는 질문 나누기

서로 떠오른 질문을 공유해요.
질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눠요.

지난 주 말씀 review

1. 신앙생활은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다.
2. 어려운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이다.
3.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신앙생활은 참된 기쁨이 함께 한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선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바랄 수 없습니다.

또 선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않고는 선한 국가나 세계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나 자신에서 해결점을 찾지않으면 안됩니다.

그 경계선이 마음과 몸입니다. (천 8.2.1:3)

- 사람은 몸과 마음의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은 종적인 면을 대신하고 있고 몸은 횡적인 면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

  마음은 종적인 나입니다. 또 몸은 횡적인 나입니다.

  그래서 그 횡적인 '나'와 종적인 '나'가 통일되는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인격이 완성됩니다.

  무엇을 중심삼고 이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이 통일될 수 있느냐?

  공명될 수 있는 본질을 통해 하나되는 데서 완성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권력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해서만이 공명되는 것입니다. (천4.1.2:9)

심신일체

신비한 기도의 경지, 영적 체험권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게 되면
속에서 '왜 부르느냐? 여기 있다, 여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입니다.
심신일체가 된 사랑의 중심점, 수직의 자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의 중심은 어디냐?
아무리 작더라도 그 중심은 양심입니다.
우주의 사랑의 축이 머무르는 곳, 지탱하는 선단지는 자기 양심입니다.
심신일체가 된 그 양심입니다. (천1.1.1:21)

마음과 몸이 하나되어 있을 때는 우주력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게 되지만, 마음과 몸이 하나되지 않을 때는
고통을 느끼고 반발하게 됩니다. 병 때문에 오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내에서 주체적 요소와 상대적 요소가 조화 통일이 되지 못할 때
우주의 보호력을 상실하는 한편 그 반작용에 의하여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병고입니다. 이때 주체 대상에 조화 통일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 의사의 진단에 의한 투약입니다.
이것은 개인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천3.2.3:34)

Keypoint. 몸마음이 하나되면 하늘부모님이 내 양심안에 거하시고,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수련이란 닦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닦고 연단하는 데는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깃덩이뿐인 겉사람과 다른 하나는 속사람이 그것인데,

타락한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겉사람과 타락한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본연의 인격체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본연의 인격체란

만물이 경배하고 하나님이 품에 품으시고 입을 맞춰 줄 수 있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본연의 인격체를 표준으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천 8.2.1:1)

- 사람의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몸을 악살박살 내서 점령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몸을 치지 않고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몸을 주관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마음은 허풍선같이 한 번도 몸과 대등하게 싸워 보지 못하고 번번이 져 왔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다 주사를 놔서 힘을 한 2, 3배쯤 늘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몸을 끌고 가는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잡아끌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바퀴에다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으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이, 마음에도 힘을 강하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과 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정없이 몸을 때려서 점령하는 방법과 마음에 힘을 가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천8.2.2:16)

타락성본성

창조본성

잘 주관해야 함

-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천8.2.2.:17)

-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로 돌아가려면 참사랑의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참사랑의 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통일도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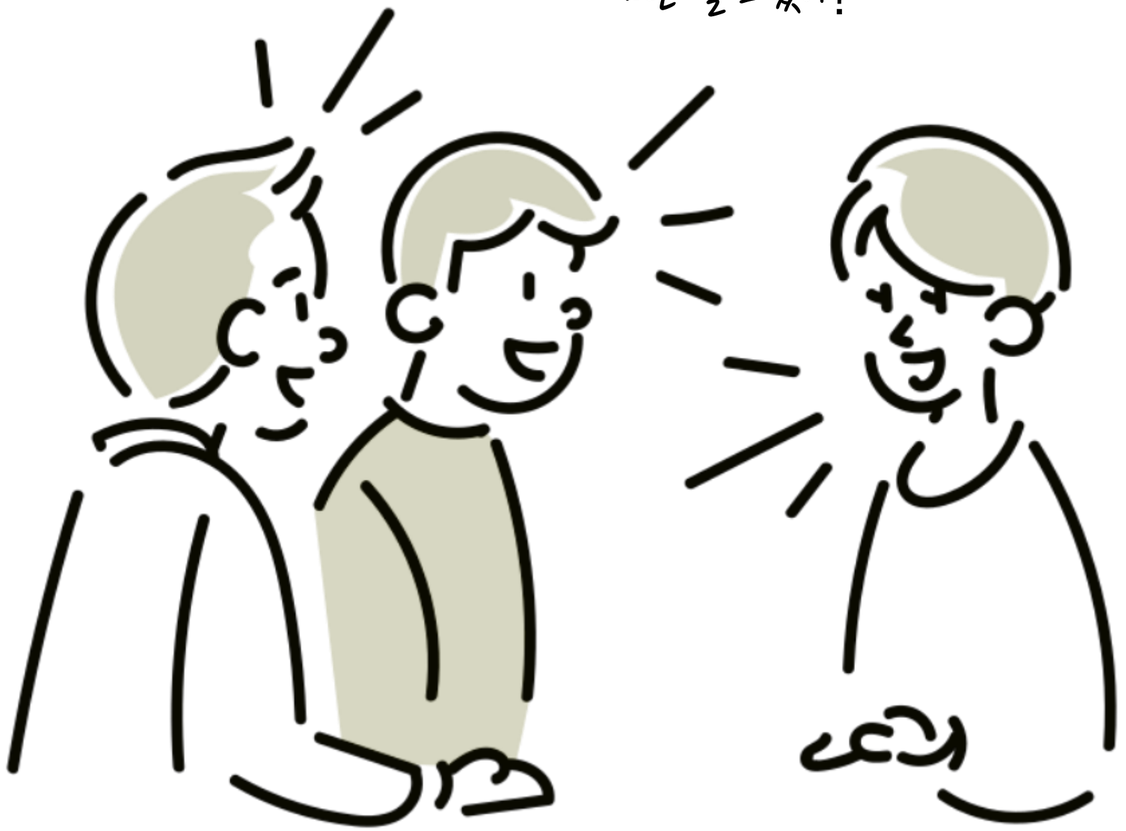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기 때문에 스승 중의 스승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파송해 준 나의 중심입니다. 종적인 나입니다. (천3.3.1:10)

공과 <내 몸의 생각, 마음의 생각>

몸	마음	결과(행동/감정)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공부해야지	공부함- 뿌듯함, 성취감 핸드폰봄- 스스로에게 실망함, 조바심남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걸 느꼈니?



사람의 생명은 사랑의 이상을 중심으로 해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본질로 해서 태어난 생명은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같이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천리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사랑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위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본연의 인간은 그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지니고 그대로 감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감응하며,
몸은 자동적으로 마음에 공명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싸우지 않는 참된 통일의 기원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아 체감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천3.3.2:3)

몸마음이 하나될 수 있게,

사랑의 힘을 키워요...